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호 [주제 제 25517호] 주제 106 (2017)년 1월 8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안정수동지,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조용원동지, 박명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희
당
부
문
과
공
장
의
일
군
들
건
설
에
동
원
된
군
부
대
지
위
판
들
이
맞
이
하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먼저 새로 꾸린 이불생산
공정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6월 김정숙평양
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



직접적인 발기와 뜨거운
운정 속에 촛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지난해 6월 김정숙평양
제사공장을 현지지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을 위한
합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
하시였으며 공사에서 나서
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
영魂을 받아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건설자들은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날에 날마다 단숨에 의
기상을 떨침으로써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연건축
면적 8,910여 m²에 달
하고 대중식사실, 생일식
사실, 체육 및 오락실, 침

면서 여러가지 질좋은 이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릴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온정깊은
조치를 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답
판철에 한 사람같이 펼쳐나선 해당 부문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은 힘찬 투쟁을 벌여 지난해 12월까지 능
력이 큰 현대적인 이불생산공정을 꾸려놓
은데 이어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불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제품
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체하시
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불
생산공정에 자수기, 다침이불누빔기, 연
단기, 재봉기 등 비롯한 이불생산설비를
그흔히 갖추어놓고 겨울이불, 여름이
불, 놀기울이불, 결혼식이불, 침대깔개를
비롯한 여러가지 침구류들을 생산하고 있
는데 대하여 민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불의 색깔, 무늬가 우리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고상하고 아름
다울뿐만 아니라 이불이 가벼우면서도
부드럽다고 하시면서 상업망률에 나가면
인민들의 눈길을 끌고 수요가 높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생산에 허용되는 차재도 모두 우리의 것

이라고 하시면서 냉변견직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비단천파 명주총 등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불들을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였다.

제품창고에 이불들이 그득히 쌓여있다고
하시면서 며칠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
공장에 가서는 가방폭포를 보았고 오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와서는 이불폭포를
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공업
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공장을
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

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
다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는 인민 속에서 인기가 있는 질좋은
이불들을 꽁꽁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현지지도하시
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구내에 로동당시대
의 건축술을 과시하며 희한하게 건설된
로동자합숙은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
상이라고 하시며 로동계급에게 보다 훌륭
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실 풍으로 이루어진 7층짜리 로동자합숙
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기념비적
건축물로 홍릉히 일떠세우는 성과를 이룩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고 특색있다고, 종합
적인 편의봉사시설과 외랑으로 훤칠된 건
물외벽에 로동자합숙이라는 글씨를 편지
하게 불이었는데 공장로동자들의 집이라
는것이 잘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합숙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2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관홀에 들어서시여 학숙의 특성에 맞게 흘의 공간을 잘 꾸렸으며 복도의 층고도 알맞춤하다고, 벽색깔도 아늑한 감을 느낄 수 있게 잘 선택 하였다고 기뻐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중식 사설, 생일식사실들이 정갈하며 장식품들과 주방에 갖추어놓은 설비들, 그릇가지들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학숙생들이 입사하는 날 연회장같은 식사실에서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학숙생들이 하루일을 마치고 즐거운 휴식을

할수 있게 꾸린 체육 및 오락실도 흥勃勃이며 그들의 생활상전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꾸려진 침실들에 책꽂이, 옷장은 물론 경대까지 갖추어놓았는데 여성들이 연지분지로 단장하며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로동자합숙을 여성들의 실리에 맞으면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했다고, 가구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대단히 높았고, 지열에 의한 난방보장체계를 구축해놓았는데 학숙생들이 한겨울에도 뜨뜻한 곳에서 생활할수 있게 되었다고 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 종업원들이 새로 건설된 학숙을 세상에

볼도 없는 로동자들의 궁전, 호텔이라고 한다는데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로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을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나라에서만 일떠설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었으면 얼마나 기뻐 하시겠는가고 드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로동자합숙까지 일떠설으로써 종업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일하며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게 되었다고, 일군들은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생활상에로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물어주어야 한다고, 훌륭한 로동생활조선보장이자 높은 생산

실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합숙은 로동당시대의 문명의 높이,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오늘날 우리의 건축술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당이 준 명령을 빛나게 결사관철한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 군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경공업부문의 중추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장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남먼저 뜯친 전세대의 로동계급

처럼 우리 당이 래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끌어잡고 힘차게 대달림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해의 벅찬 투쟁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본보기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해벽두부터 조국의 무강번영파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대해 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당창전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수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점지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쓰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세계 2017년에 즐을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었다. 그 이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흠험을 우리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전하였다.

베네수엘라 페테루트TV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코의 홍콩 청황위성TV방송, 환구

망, 국제방송망, 백두산체스코, 도이췰란드방송망, 인데내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조선인민파의 친선 및 편네실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금당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 문화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중국

전당초금당 위원회를 치른 소식을 보도하였다.

구마의 브렌짜 라페나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대련부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 가합창단 활동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신문, 잡지, 통신통신 《에지나야 고데야》, 《엠위춰》, 브라우다, 루, 중국의 통신, 신문 《비통망}, 파오스의 통신, 신문 《비통망}, 파오스의 통신, 신문 《비통망}, 미국의 VOA방송, 티임디아임스, 미국의 VOA방송과 채스코, 도이췰란드의 인터넷홈페지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금당위원장대회 제1차 전당초금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중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전국집행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요한네스부르그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전국집행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회장전 105회에 즈음하여 귀 대회 전국집행위원회와 천체 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는 창건후 장구한 기간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인종격리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남아프리카인민들의 두쟁을 승리에로 명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귀 대회가 온갖 도전과 간섭을 이겨내고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안정,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단체지주를 위한 두쟁에서 맷어진 우리 당과 귀 대회사의 친선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협력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루하기 위한 귀 대회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6(2017)년 1월 7일

평양

【조선중앙통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영웅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자

떳떳하게 빛내이리 당이 준 부름을

2017년 1월 1일 0시.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더불어
평양의 하늘가에 축포가 터져올
렸다. 이들마운 풍물보라가 환희에
넘친 사람들은 하늘에 천만구슬
되어 내려앉았던 그 시각 북장지
구구광현 할 기업소 회안군판 차
광수청년돌격대원들은 어느때와
다름없이 막강으로 향하였다.

세수떨어지는 지하작장에서
지방한 한해를 돌아보며 새해
의 첫걸음을 뗀 그들의 가슴
은 이를 할수 없는 걱정으로 뜨
겁게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국건설의 앞장에
서 물결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우리
사회인의 가장 끌려있는부대인
청년들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얼마나 궁지 놓이 벅차게 달려
온 2016년이었지.

년간 금전계획을 통성의 70
일전기준에 활용 앞당겨 끝낸
그들은 청년집전으로 2000일
전투적획을 완수하고 김일성

사주의 일군들과 함께 철학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한편 기업소
적으로 집행한 한광현청년돌격대
원들의 고속도급전경기에서도 그

들은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그 나날에 그들은 계획으로 돌
격대원들도 더 뛰어들게 일떠세

혔다. 제승으로 온실난재도 가꾸
고 무역트도 편류히 하며 자
력자장의 진지함을 느끼었다. 모두

자원적 학습경험에 되었다.

못 잊을 추억의 갑피를 더듬

회 안 탄 광
차 광 수 청 년 돌 격 대 원

으며 막강길을 걷는 차광수청년
돌격대 대장 리성훈동무의 귀걸
이 물속 소대장 치월현동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해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우리에게 첫 고속도급전경기 때
생각나니까, 아마도 우린 그
때 세일 크게 차린 것 같았습니다.》

탄광의 중심공정들을 맡아 꿈
직무하게 일감을 제끼며 새
만발을 마련하는 과정이 꿈
년돌격대원들을 자력자강의 뒤
사, 탄원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

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
길을 찾는 힘을 더해 철학을
제시해 주는 그들은 저

